

##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송영순 선생의 영면에 붙여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략이 지금 나에게 들쭉거리고 있다. 박 정권의 억압자들은 나를 가톨릭에 침투한 맑스 레닌주의자로, 민주주의자를 위장한 공산주의 음모가로 몰아 투옥하였다. 이제 곧 나를 교활, 음험한 공산주의자로 영원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낙인찍기 위한 재판 놀음이 벌어질 것이며, 그 결과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져 온 솔한 관제 공산주의자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김지하의 양심선언은 75년 5월 옥중에서 쓰여져, 그해 8월 4일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원문과 함께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공표되었다. 이 양심선언은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잠자는 지성을 흔들어 깨웠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을 비롯하여 2백여 명의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바로 그 해 9월에 발표했다. 독일의 브란트, 프랑스의 사르트르 그리고 노먼 메일러 등이 김지하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특히 당시 병중에 있던 사르트르는 “우리들은 당신의 양심선언을 참으로 경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하루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 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는 편지를 김지하에게 보냈다.

이러한 세계 여론에 힘입어 김지하는 그가 염려했던

‘관제 공산주의자’라는 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양심선언의 발표와 세계적인 ‘김지하 구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고(故) 송영순 선생이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의 자료를 내밀하게 전달받아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발신했다. 자료를 받아 번역·정리하는 일, 그것을 일본 국내와 세계 각지에 배포하는 일, 팸플릿 또는 책자를 만드는 일 등 이런 모든 굵은일을 그가 도맡아 했다. 한국으로 오는 인편을 찾아 자료를 보내는 일까지 그의 몫이었다.

송영순 선생의 손으로 퍼낸 민주화 관련 자료만도 상당한 분량이다. 김지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말로로는 『불귀』라는 제목으로 김지하 ‘양심선언’을 펴냈고, 재판 기록을 묶어 『김지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3·1 명동성당기도회 사건 때는 최후진술을 비롯한 재판기록을 정리, 일본의 신문·잡지에 싣는가 하면 전 세계에 그 자료를 배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그 엄청난 틈새를 뚫고 일본에 보내진 광주 민중항쟁의 기록과 사진을 전 세계로 발신했다. 김성용 신부의 『분노보다 슬픔이』라는 수기가 일본에서는 물론 독일에서까지 널리 읽힐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분 덕택이었다. 10·26사태의 진상, 즉 김재규의 육성증언을 전 세계로 발신했던 것도 그였다. 동일방직 사태를 비롯하여, 유신정권 아래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그때그때 온 세계에 자료로 알린 것도 그였다. 이 나라에서 공개적으로는 최초의 반미운동이라 할 부산미문화원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내언론은 오직 보도지침에 충실할 뿐 단 한 줄도 취재하지도 보도하지도 못 했다. 문부식·김현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전 세계로 중계한 것도 송영순 선생이었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기록을 하나로 묶어 일본가톨릭정의와 평화협회의 이름으로 펴내기까지 했다. 1978년에 나는 당시 도피 중이던 조영래로부터 전태일 평전의 원고를 받아 일본의 송 선생에게 보냈고, 송 선생이 이를 펴냈으니, 이것이 전태일 평전 최초의 출판이었다. 1984년에 일본의 정의와평화협회는 송 선생을 책임 편집인으로 하여 이제까지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그가 세계에 발신한 자료들을 모아 『양심선언, 한국천주교회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영문책자를 전 5권으로 펴냈다. 아마도 한국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책자로서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송 선생에게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그의 활동은 항상 한국 정부의 감시의 표적이 되었다. 당연히 70~80년대에 그는 감옥행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올 수 없었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벌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그는 1973년의 8·3 조치 때 그와 그의 가족이 회사에 빌려준 그때 돈으로 2억 원 가까이를 신고했었다.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했다가 10년 뒤에 갚도록 한 것이 8·3조치였는데 10년 뒤, 그는 그걸 찾으러 한국에 올 수가 없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앉아서 떼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데 따른 불가피한 재산상의 피해였던 것이다. 그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때는 직선제 개헌이 관철되고 난 이후였다.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올 수 없었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교수에 의하면 6월 말 경 송 선생을 만났는데 김재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면서 KBS에서 제작된 인물현대사의 「황인철」편 비디오테이프를 주터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 그분은 또 말년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 깊이 관여했는데, 과연 그가 남긴 유품 중에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자료가 많았다.

일찍이 서준식은 일본에서는 '조센징'으로 천대받고, 고국에 오면 쪽발이의 아류쯤으로 대접받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다. 송 선생 역시 재일동포 1세로서 그런 경계인의 삶을 넘나들면서도 민족정기를 잃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을 바로 잡아주려 노력하였으며, 한국인을 향해서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포용하도록 솔선하여 애쓰셨다.

지난 8월 초, 송 선생은 자신이 거쳐하시던 북한산 자락 평창동의 원룸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영면하셨다. 질병도 고통도 없이 고국 땅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으니 개인적으로는 선종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2002년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해외민주인사로 초청되었던 것을 빼고는 송 선생은 조국에서 그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대접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 했고 고국 땅을 전전하며 고생만 하다가 가족 품을 떠나 객사하셨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신에게 진 큰 빛을 영원히 갚을 길이 없게 되었고 뒤늦게 달려온 가족들의 슬픔에 뭐라 위로할 길이 없게 되었다.

8월 4일 강남 성모병원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영결미사가 있었으나 마지막 가시는 길로는 너무나 고적해서 안타까웠다.

송 바오로 선생, 거기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는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소서.

(김정남)